광주시립미술관장 공석 장기화되나

박지택 관장 임기 만료… 市, 대책없이 허송세월

당분간 市 간부가 관장 겸임하며 후임자 물색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후임 관장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는 박지택 전 관장의 임기를 지난 12일까지 3개월 연장했으나 이 기간에도 관장 자리에 앉힐 인물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 문화수도지원과장이 당분간 시립미술관장을 겸임하고, 서둘러 후임 관장을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다="시립미술관을 발전시킬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일 임기가 끝난 박지택 전 관장을 떠나보내며,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인물난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는 일반직 공무원 4급 대우를 받는 미술관장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 1~2급 대우로 올려서라도 유명 인사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격에 맡는 유력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급 대우, 서울시립미술관장 3급이며 다른 지자체의 시립미술관장은 4급 대우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임기가 끝난 다른 지자체 미술관장 김모씨, 미국의 독립큐레이터인 다른 김모씨, 지역 원로작가 황모씨 등을 후보군에 놓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이들의 개인 사정과 조건이 맞지 않아 인선에는 모두 실패했다.

박 전 관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시키면서 까지 적임자를 찾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던 광주시가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됐다.

▲행정 공백 우려와 향후 일정은? =시립미술관의 예산과 2011년 행사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행정 공백 우려는 없다. 또 광주시 문화수도지원과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장직을 겸임한다면 예산 집행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시회와 외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아트페어 등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미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립미술관 관장과 타 기관의 긴밀한 협의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미술관의 행사들이 대부분 6~12개월 전에 계획·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는 신임 관장 인선은 시급하다.

반면 광주시는 느긋한 입장이다. 12일 박 전 관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후임 인선 절차도 박 전 관장이 떠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미술 관계자는 "미술계의 인력난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립술관도 5년 동안 학예실장이 공석이었고, 광주시의 눈높이에 맞는 유명 인사들은 타지에서의 근무를 꺼린다"면서 "확실한 지원책을 내놔 유명 인사를 영입하든, 가능성을 보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든 광주시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2일 박지택 전 관장의 임기가 끝난 광주시립미술관은 후임 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관장 공석 상태가 됐다. 사진은 시립미술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

■광주시립미술관 떠나는 박 지 택 관장

"전문인력 영입 시급… 지역작가들 다양한 기회 줘야"

"광주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 전문직 직원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4년 3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2일 퇴임한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 전 관장은 전문 인력 영입을 미술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행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진 조직을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좋은 전시와 더욱 많은 국제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북경창작센터와 인사동 분관을 내는 등 외형적 성과를 거뒀고, 이를 통해 수많은 작가들이 해외·서울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박 관장의 재임 중 성과는 ▲전시공간의 확대 ▲미술관 전체 예산을 40억여원에서 70~80억여원으로 증액 ▲작품 구입비 3억여원에서 10억여원으로 증액 ▲소장품 확대 등이 꼽힌다.

또 루벤스전,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등 블록버스터전과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지역 작가를 알리는 디저트전 등 의미있는 전시회와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공립미술관과 활발한 교류에도 나섰다.

"광주는 이젠 축적된 문화적 역량을 외부에 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통로 역할을 광주시립미술관이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미술관이 지역 작가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반면, 그는 현대 미술의 중심 미국 뉴욕에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을 개관하려던 계획이 장기화되면서 임기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지역작가와 관람객이 더욱 친숙하게 시립미술관을 찾길 바라며, 저는 전업작가로 돌아가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미지 확정

전시주제 '도가도비상도' 개념 강조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를 상징하는 시각 디자인인 EIP(Event Identity Program·사진) 개발안이 발표됐다.

EIP는 비엔날레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포스터, 광고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일종의 대표 이미지다.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안상수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이번 EIP의 특징은 전시 주제인 '도가도비상도'를 타이포그라피를 사용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안 교수는 "시각적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하단에 'd=D≠d'를 배치해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다'는 도가도비상도의 개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의 062-608-43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포크가수 김은영 '빛고을 희망메세지'

19일 동산아트홀서 첫 콘서트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포크가수 김은영〈사진〉씨가 오는 19일 광주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첫 콘서트를 연다.

'김은영 콘서트 2011 빛고을 희망메세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 김은영씨는 첫 솔로 음반 '그리움을 말하다' 수록곡과 팝송·트로트 등 폭넓은 음악을 선사한다.

포크가수 한보리가 우정 출연하고, 건반 윤정노, 기타 홍필선, 베이스 안병철, 드럼 용진씨 등이 함께 한다.

그녀는 지난 2001년 한대수, 송창식, 김세환, 윤형주, 최백호 등 60~7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가수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친 '포크 30주년 기념공연' 에이필원과 함께 듀엣 '뚜아에무아' 3기로 무대에 올랐던 가수다.

2006년 솔로 독립 후 포크가수 사월과오월, 임지훈 공연 및 김정호 추모콘서트에 게스트 출연했고, KBS 3라디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코너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출연하여 노래로 한글을 배워보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엠마우스복지관 광주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기초역량강화·자조모임 참가자 모집

여성가족부 지정 엠마우스복지관 광주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센터장 김정미)가 2011년 여성장애인 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서 안정 및 가족친화사업, 사회·문화·여가활동, 경제 활동 등으로 구성된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한가족프로그램(6명), 피부미인(비누공예·천연화장품 만들기 7명), 펠트(초급 5명, 고급 4명) 등으로 나눠 모집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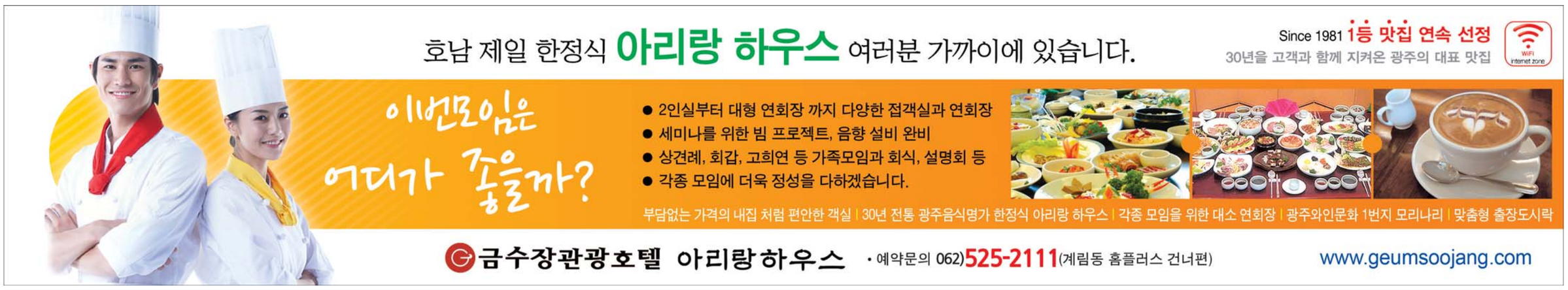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친목 도모와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으로 동아리 활동, 사회성 향상을 위한 1:1 멘토링 활동을 서비스하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엠마우스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알리고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의 062-524-7728. /김대성기자 bigkim@

'예술광주' 2010년 12월호

작년행사·인터뷰 등 실어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발간하는 '예술광주' 2010년 1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무용제, 광주아트페스티벌, 한국예총전국대표자회의, 광주비엔날레 등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굵직한 행사들을 정리했다. 또 무용인 이영애, 피아니스트 서영화, 작가 신양호·김성우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인터뷰도 실었다.

그밖에 태백산맥과 월출산 큰바위 얼굴을 앵글에 담은 사진작가 강경숙·박철씨의 '이야기가 있는 사진', 주라영씨의 인도기행, 건축가 박홍근씨의 전남도청 별관과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글 등 읽을거리가 푸짐하다. /김미은기자 mekim@